

“올 시즌, 공격적인 야구할 것”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
2022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선수들, 기대만큼 잘 따라와
부상·코로나19가 변수”



2022프로야구 개막을 나흘 앞둔 29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시즌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2 프로야구 개막을 나흘 앞둔 29일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은 “올 시즌에는 불넷을 허용하지 않는 등 좀 더 공격적인 야구를 하겠다”며 “개막전부터 전력을 다해 시즌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감독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선수들이) 계속 주문한 대로 잘 움직였다. 시범 경기를 토대로 준비가 모두 잘 된 것 같다”며 “젊은 선수들이 기대만큼 잘 따라와 줘고, 투수와 야수 모두 공격적인 면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수들의) 정신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팀을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시범 경기마다 보여준 접전 끝에 거둔 승리에 대해서는 “접전 상황에서 이겨야 팀이 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시범 경기지만 역전승도 많이 거둬야 이기는 요령도 터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넷을 허용하지 않는 공격적인 운영 방침을 시즌 중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나와 투수진 모두 느슨하지 않은 좀 더 공격적인 야구를 하려 한다”며 “이는 전략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또 “타자들에게도 헛스윙이든 파울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치라고 주문했다”며 “공격적인 야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시범 경기를 통해 투수 분야에서는 한승혁 타자 분야에서는 김석환·김도영 선수가 두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석환과 김도영은 초반에 선수진에 합류하지 못해 걱정했지만 지금은 기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개막전을 나흘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선수들의 부상과 코로나19 확진을 꼽았다.

그는 전날 SSG 랜더스와의 시범 경기 당시 공에 머리를 맞은 나성범 선수를 걱정하면

서 “단순 타박상이라 다행이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부상을 당해서는 안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관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며 “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준비 명단에 오른 선수들을 풀업해서 맞춰갈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개막전에 출전하는 선수진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최근 시범 경기에 나선 선수진들과 비슷한 것”이라면서 “선발 투수는 추후 따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개막전 엔트리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언젠가 풀업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만큼 준비를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최근 칠원에서 열린 제40회 회장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전북체고 레슬링부가 메달을 대거 획득했다. 사진은 전북체육중·고 레슬링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다.

전북체고 레슬링부, 전국대회 맹활약

김정민, 자유형 70kg 금메달 획득

자유형 단체경기 우승도 차지

그레코로만형에서도 메달 쏟아져

전북체중 이나현, 자유형 61kg급 금

또 김도형(57kg급)과 이재우(61kg급), 전진수(66kg급)는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전북체고는 자유형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그레코로만형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이주원과 최재호는 각각 60kg급과 97kg급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진영권(51kg급)과 유재원(72kg급), 박예찬(97kg급)은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북체육중학교 이나현(여)은 자유형 61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체고 이준진 감독은 “전북교육청과 전북체육회 그리고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어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살아난 커쇼... 3번째 시범경기서 첫 무실점 호투

메리조나와 시범경기서 40닝 3K 무실점

클레이튼 커쇼(34·LA 다저스)가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첫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살아난 모습을 보였다.

커쇼는 29일(한국시간) 미국 메리조나주 스토크데일의 스토크데일 필드에서 열린 메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2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0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40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삼진 3개를 잡았고,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완투를 선보였다.

커쇼는 1회말 상대 리드오프 카스 켈리에 좌전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타자 돌턴 바쇼를 3루 플라이로 잡은 뒤 크리스티안 위커에 병살타를 유도해 이닝을 끝냈다.

2회부터 4회까지는 한 타자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았다. 커쇼는 5회말 비터 곤잘레스에 마운드를 넘겼다.

2008년 빅리그에 데뷔한 커쇼는 다저스의 에

이스로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14시즌 동안 통산 379경기에 등판해 185승 84패 평균자책점 2.49의 성적을 거뒀다. 2011년과 2013년, 2014년에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고, 2014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었다.

2021시즌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은 커쇼는 1년 1700만달러에 다저스와 재계약했다.

지난해 연봉이 3100만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커쇼 입장에서 아쉬운 계약이었다. 지난 시즌 10승 8패 평균자책점 3.55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는 등 최근 하락세를 보인 커쇼는 다저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커쇼는 앞선 두 차례 시범경기 등판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19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1⅓이닝 1실점, 24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에서 2⅓이닝 2실점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이날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부활 기대를 높였다. 이날 호투로 커쇼의 시범경기 평균자책점은 7.36에서 3.52로 내려갔다. /뉴시스

프로농구 6강 PO, 내달 9일 개막... 챔피언결정전은 5월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가 4월 9일 개막한다.

KBL은 29일 “프로농구 봄의 축제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PO가 4월 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규리그 3위와 6위, 4위와 5위가 5전 3선승제로 붙는 6강 PO는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열린다.

6강 승자와 정규리그 1, 2위 팀이 격돌하는 4

강 PO(5전 3선승제)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치러진다.

4강 PO 승자끼리 붙는 챔피언결정전은 7전 4선승제로,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PO와 챔피언 경기 시작 시작은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오후 6시지만, 중계 방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뉴시스

박영재 신임 전북승마협회장 선출

전주지전대학교 박영재 교수가 전북승마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 밝혔다.

2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북승마협회 회장 선거에서 박 교수가 당선된 것.

이후 체육회 인준절차가 끝나 박 당선인은 정식으로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박 회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태극과 국제교류 승마대회를 펼쳤으며, 전북도가 승마특구로 지정되는 데도 노력했다.

또한 지난 2019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정은성 기자



KOVO, 산불 피해지역 돕기 성금 기부

한국배구연맹(KOVO)과 V-리그 남녀부 14개 구단이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KOVO는 V-리그 14개 구단 연맹 NFI(대체불가토콘) 사업권자 블루베리NFI와 함께 강원·경북 지역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재난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